

1번

(가), (나),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 각각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가)와 (나)는 개인의 행복을 사회와 별개의 분리된 것으로 보지만, (다)는 개인의 행복을 사회와 결부시켜 관계있는 것으로 본다. (다)는 개인들은 사회의 구성원이고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은 사회의 행복의 총합과 직결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들의 행복이 높아질수록 사회의 행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공동체의 입장으로 공리의 원칙 아래에서 사회의 행복의 양을 높인다는 것이 (다)의 입장이다. (다)가 개인의 행복을 사회와 결부시킨 것에 반해 (가)와 (나)는 개인들 그 자체로서의 행복만을 다룬다. (가)는 로마사회의 노예제도를 사회의 산물이 아닌 개인의 불행으로 규정함으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즉 타인의 행복을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주인과 노예의 행복과 불행이 서로 연관있는 것이 아닌, 각자의 운명이란 이름 아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운명에 따라 불행이 행복으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는 타인과 관계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나)는 남편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도 아내에게 사회적 책임만을 지우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아내의 이야기이다. 아내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정해 놓은 인륜, 예의, 염치 등 때문에 부당한 처우까지 참아가며 불행할 수는 없다고 한다. (가)와 (나) 모두 개인의 행복을 사회와 별개로 봄을 알 수 있다.

(다)와 달리 개인의 행복을 타인과 분리하며 서로 유사한 관점을 보인 (가)와 (나)는 개인의 행복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개인들의 행복이 훌륭함과 같이 한다고 본다.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훌륭함을, 노비는 노비 나름대로의 훌륭함이 있어, 그것을 추구할 때에 행복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훌륭함, 다시 말해 인륜, 예의, 염치 등이 개인의 불행을 초래한다면 마땅히 그 훌륭함을 반대하고 개인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것을 말한다.

2번

(라)의 도표를 보면 B가 C보다 행복도의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전체의 행복의 양은 B가 C보다 높은 것이다. 그러나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B의 표준편차가 C의 표준편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한 사회의 국민들의 행복도의 차이가 서로 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B를 이루는 개인들 중 C의 개인들보다 낮은 행복도를 보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C를 B보다 이상적이라고 여긴다. (나)는 개인의 행복이 사회와 상관 없이 별개인 것으로 본다. B처럼 사회의 행복 총합이 높더라도 표준편차가 커 극단적으로 불행한 국민들이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이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C는 사회의 행복 총합으로 보자면 B보다 적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사회 행복의 양은 (나)의 입장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C의 표준편차는 B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국민들이 특별하게 행복하거나 극단적으로 불행하지 않는 대신, 골고루 행복함을 뜻한다. 따라서 개인 그 자체가 느끼는 행복을 중시하는 (나)는 B보다 C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긴다.

이에 반해, (다)는 B를 C보다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긴다. (다)는 사회를 공동체의 전체로 바라보고 공동체의 최대이익, 행복을 추구한다. 각 개인들의 행복 편차는 공동체의 총합 아래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다)에게는 오로지 사회의 행복도가 높은 것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높은 행복도를 보이고 있는 B가 C보다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B의 표준편차가 높음은 그 사회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차이가 큼을 나타낸다. 그러나 (다)는 사회 공동체의 행복을 따질 때 이런 개인들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공동체의 관점에서 행복에 접근하기 때문에 표준편차보다 행복도만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는 C보다 높은 행복도를 보이는 B를 더 이상적이라고 여긴다.